

2019년 1월 선교소식

받은편지함



Andrew Park <tcbc.park@gmail.com>

오후 9:20
(1분 전)

나에게

2019년 1월 선교소식

살롬!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시 37:5)"

새해가 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고 신뢰하여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길 소원하며 2019년 첫 소식드립니다.

I. 탕가 신학교 (TCBC)

1. 학생들 상황.

첫 학기가 시작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년초 첫 학기라서 그런지 다른 학기보다 모든 면에서 더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28명으로 여느 때와 같이 여러교단에서 입학했으며 현재 학생수는 2학년 29명, 3학년 17명을 포함하여 총 74명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장학금 소식.

신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략 세 종류입니다. 1) 후방(한국,미국)의 후원, 2)현지 후원(선교사들 및 리빙스톤학교 교사), 3) 그리고 성적 장학금 형식입니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37명이 되지요. 이중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후원으로는 학비보다 교통비가 많이 드는, 먼거리에서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 후원 방법이 계속 된다면 학교 운영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학금은 한학기(3개월) 교육에 필요한 금액만을 의미하며 약 50불 정도 됩니다.

한명의 학생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LSBS)

1. 신입생 및 재학생 소식.

올해의 신입생은 모두 43명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수 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오히려 질적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학생수는 252명입니다. 교사들 역시 이동이 있었습니다. 정부 학교에 발령이 나면

언제든지 떠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반면 안정적인 교사들을 여러명 새로 맞이하였습니다. 변화가 많은 여러 환경들을 잘 이기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학과 더불어 오는 5월 국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집중강의(intensive course) 화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중강의는 이른 아침과 밤 자율학습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학년 학생들은 물리 집중강의 시간을 같은 시기에 가졌고 잘 마쳤습니다.

2. 2018년 중등생 국가시험 결과

지난해 2학년 국가 평가 시험은 모든 학생들이 평가에 통과하였습니다. 42명 가운데 38명이 1등급, 4명이 2등급으로 노력한 만큼 기쁘고 안정적인 결과를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4학년은 모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52명의 학생 가운데 1등급 24명, 2등급 24명 그리고 3등급 4명으로 전국 약 5000개의 중학교 가운데 86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번 결과보다 다소 향상되어 학생, 교사 모두 더욱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후방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건축 소식

한동안 쉬었던 큰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 우선 중학생들 전용 과학실험실 공사가 재기되어 한창 진행중입니다. 실험실은 그동안 고등학교와 함께 사용을 해왔는데 올 중반기부터는 중학교 학생들 전용 실험실이 생기게됩니다.

2) 선교센터 건립.

우리 모두 지난 24년의 사역기간동안 학교와 교회 건축의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선 중요한 일부터 신경을 쓰다보니 선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한국 서울에 있는 신성 장로교회에서 \$45,000을 후원하셔서 작지만 규모있는 꼭 필요한 건물(2층)을 세우기로하고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성 장로교회는 이미 이 지역에 4곳의 교회와 아담한 유치원을 건축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선교센터를 위해 헌금을 하였고 2월 13일 부터 약 10일간 방문하여 3곳 교회와 유치원의 헌당예배, 선교센터 기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건립될 선교센터는 현지에서 이루어진 선교사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 보관하는 용도와 일부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계획 하였습니다.

III. 지역교회 건축과 선교팀 방문 계획

2018년에 건축이 시작된 일부 교회들은 이미 완공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좀 늦게 시작한 교회들도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지거나 공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인 교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킬라플라 교회 (한국 뽀엘교회)
- 2)키움바 교회(한국 성광교회)
- 3)길갈 교회(한국 사모사랑선교회)
- 4)마굴라 교회 (한국 신성교회)
- 5)7km 교회 (한국 신성교회)

- 6)미브모니 교회(한국 신성교회)
- 7)Holly Star 유치원(한국 신성교회)
- 8)음베아 교회 (미국 황치훈 장로님 가정)
- 9)마사시 교회 (미국 황치훈 장로님 가정)
- 10) 사꾸라 교회 (미국 안문균 목사님)
- 11) 솜바왕가 교회 (미국 황치훈 장로님)

<11 번 솜바왕가교회는 지난해 교회부지를 구입하였고 건축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후 천막교회로 시작하여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3 번의 '길갈 교회'는 특별한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와도 연결이 되어있는 특별한 소식입니다. 2 번째 소식을 함께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IV. 박윤석 선교사 부부 소식.

2008 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1 년동안의 안식년 보낸 후 아직 안식년을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잠시라도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육체의 소리가 느낌으로 들려옵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역지의 특성상 장기간의 휴식을 가질 수 없어 약 2 개월여의 휴식 기간을 갖으려 합니다. 우리들 표현으로는 안식년이 아닌 안식월이 되겠지요. 기간은 3 월 1 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5 월 10 일 출국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사역지의 원활한 흐름과 안식월 기간 머무는 곳에서의 필요한 경비들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기간에 가능하다면 미국 선교회 식구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개인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붙여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